오늘의 작품

■ 수빙 작 '백그라운드 스토리'

동서양의 공존과 혼돈

백그라운드 스토리(Background Story)는 의재 허백련 선생의 1947년작 '제후산수(霽後山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소나무와 나뭇가지 등 실제 자연물을 반투명 스크린 뒤에 설치해 입체 풍경을 만들고, 이를 스크린 앞 면에 투사한 일종의 그림자 산수화다.

관람객들은 스크린 전후를 오가면서 회화의 2차원적 평면과 3차원 설치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전통적인 소재와 현대적인 표현방식의 결합을 통해 동서양의 공존과 혼돈의 느낌을 살려내고 있다.

중국 태생인 수빙은 80년대 중국 뉴웨이브 운동을 이끌었으며, 전통한지를 목판방식으로 인쇄해 공중에 설치한 'A BOOK from the Sky'로 국제미술계에 알려졌다.

북경 중앙미술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비엔날레 (15일)

▲마임공연 '이사가는 날'=오후 2시·4시, 빛 카페 원형무대. 마임 예술단인 '기막힌 놀이터'의 마임 공연.

▲무진주 문화마당=오전10~오후 6시, 민속박물관 1관. 사이버문학인협회의 시화전, 시낭송.

▲마술 퍼포먼스=오후12시 30분·2시 30분, 빛 가든. J MASIC이 선보이는 신나는 마술.

▲솟대 전시=오전 10시~오후 6시, 민속박물관 1관. 개막식에 선보인 솟대 조형물과 다양한 개성의 솟대 50 여점 전시.

▲전자바이올린 공연=오전 10시·11시, 주 전시관 앞. 카자흐스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아카 미샤(Aka Misha)의 공연.

▲시사이 공연=오후 2시·3시·4시, 빛 카페. 에콰도르 민속그룹의 음악 공연.

열풍변주곡 Fever Variations

예술의 거리 20일까지 '광주 아트페어'展

2006광주비엔날레 부대행사인 아트페어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展'이 열리는 광주시 동구 궁동 무등갤러리에서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전시회는 가나아트샵, 나인갤러리, 메트로갤러리, 원화랑에서 20일까지 동시에 열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올 가을엔 그림 하나 거세요

가나아트샵 등 5개 화랑 참여…작품 현장구입 가능

'올 가을엔 그림 하나 걸어보세요.'

누구나 그림 한 점 정도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망설일 때가 많다. 하지만 예술의 거리에 가면 아기자기한 그림도 실컷보고 수준높은 작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지회장 박지택)가 오는 20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5개 화랑, 작가 265명 작가가 참여하는 '광주 아트페어-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전을 열고 있다.

참가화랑은 가나아트샵(236-2870), 나인갤러리(232-2328), 메트로갤러리(226-8057), 무등갤러리(236-2520), 원화랑(062-222-6547) 등 5개 화랑이다. 작품 크기는 1호부터 10호 미만으로, 작품가격은 10만~30만원이다.

2006광주비엔날레 동반전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작가·시민들이 작품을 통해 만남을 가짐으로써 미술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침체된 예술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비록 소품이지만 김종일(전남대), 노의웅(호남대), 허진(전남대) 교수를 비롯 2006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 정송규씨 등 미술애호가들에게 친숙한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인다.

또 김재형 호남대 명예교수, 노은희 조선대 교수, 오견규 광주미술심의위원, 채종기 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조기동 용곡서예연구원장, 정순이, 강남구, 이상목, 김해성, 박동신, 최병구, 신동철씨 등도 출품했다.

이들 작가들은 서예, 문인화, 서양화, 도자기, 디자인 등 미술 전 부문에 걸쳐 작품을 내놓았다.

작품을 구입하려면 작품 값을 갤러리 측에 지불하면 된다. 곧바로 작품을 가져갈 수 있으며, 전시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을 가져갈 수도 있다.

박지택 한국미술협회광주시지회장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번 행사는 지역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고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술 그룹 '새벽' 회원전

'배달하는 미술' 20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

창립 15주년을 맞은 그룹 '새벽'(회장 한희원)이 20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민들레소극장 지하)에서 회원전을 갖는다.

전시 주제를 '배달하는 미술'로 정한 새벽은 기존 전시회 도록과 달리 타블로이드 판형 신문 형태의 작품집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는 한희원 회장을 비롯 회원 30명이 출품한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설치 작품과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참여 작가는 고근호, 김기범, 김성식, 김숙빈, 김해성, 박은수, 유상국, 채종기, 하영술, 서병옥, 전범수, 황순칠, 임종두, 김상영, 이득선, 나명규, 안태영, 윤선종, 양홍길씨 등이다.

한희원 작 '먼길-섬진강 변'

새벽은 지난 1991년 인재미술관에서 창립전을 가진 이래 지난해까지 22차례 회원전을 가져온 대표적인 지역 미술 단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음악도 듣고 책도 기부하고

문화신포니에타 모닝콘서트 18일 광주일곡도서관

문화신포니에타가 마련한 모닝콘서트가 18일 오전10시30분 광주 일곡도서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굿 모닝 미스터 바하'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문화신포니에타 4중주단(오현미·오인표·김주영·박후남) 외에 유정아(광신대 교수), 이우광(광주시향 수석), 김진희(소프라노)씨가 함께 협연한다.

레퍼토리는 'G선상의 아리아', '마니피카트' 중 빌라 로보의 '브라질풍의 바흐' 제 5번 중 아리아, '아베 마리아',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 단조' 등이다.

음악회에 참석할 때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을 도서관에 기부하면 된다.

다음 모닝콘서트는 '러시아의 아침'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575-34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갓스펠' 공연

광주대 16·17일 광주문예회관

광주대 음악학부가 올해는 뮤지컬 '갓스펠'을 공연한다. 16일 오후3시·7시30분, 17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2007년 입시부터 실용음악보컬 전공을 신설할 계획인 광주대는 이번 무대에서 그룹사운드 핏 밴드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춤과 노래, 연기를 선보일 예정.

마태복음 43구절을 인용해 만든 '갓스펠'은 성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시종일관 흐르는 흥겨운 록음악이 관객들을 즐겁게 한다.

박미애 교수의 연출로 이현숙·정소정·박해리·정하연·나현정씨 등이 출연한다. 1만~2만원. 문의 062-670-2569.

'소리나눔' 국악공연

18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국악인들로 구성된 전남실내악단 '소리나눔'(대표 서담 남도대 실용음악과 교수) 정기공연이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쉼이 되는 우리 가락, 치유가 되는 우리 리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비나리, 판소리 '심청가' 중 한 대목, 국악가요, 국악실내악 '고구려의 혼' '춤추는 아이' '신모둠', 박상근 류 가야금산조 앙상블 등이 연주된다.

성심온(전남대 교수·가야금), 이형석(전남대 교수·바이올린), 정인봉(오카리나), 윤진철(판소리)씨가 특별출연하며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과 하늘 다래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애 딛고 세상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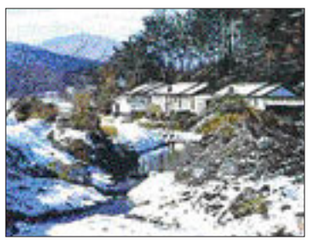
'세계농아미술작가교류전' 20일까지 5·18기념문화관

장애를 딛고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농아인 작가들의 미술작품이 전시된다.

국제농아인미술협회(회장 김봉진)는 오는 20일까지 광주 5·18기념문화관 전시실에서 '침묵을 넘어, 국경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세계농아미술작가교류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영국 등 7개국 19명 작가가 참여하며, 서양화, 수채화, 동양화, 서예 등 총 50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봉진 회장은 "청각 장애의 벽을 넘어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예술혼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라며 "이번 전시가 장애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진 작 '고향의 정'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